

# “나무는 신비 간직한 생명체... 나무 죽어가는 곳에선 사람도 못살아”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

## 19년째 전국 각지 ‘늙은 나무’ 찾아 다니며 사연 케 나무는 조상의 얼이자 우리에게 삶의 지혜 가르쳐 줘

“나무는 아직 우리가 질문조차 해보지 않은 신비를 간직한 생명체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무는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학처럼 정확하게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언어할 수 있는 이득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입니다.”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57·천리포수목원 이사)씨는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강조했다.

그는 나무에 어떤 ‘사연’이 들어있나 찾아다니는 중이다. 중앙 일간지 기사를 그만둔 1999년부터 햇수로 꼬박 19년째 전국 각지의 ‘늙은 나무’들을 찾아다니며 ‘사연’을 캐고 있다.

어떤 이는 나무를 찾아 발품을 파는 그에게 “나무, 뭐가 볼 게 있다고?” 되물곤 한다. 하지만 그는 수백 년 동안 마을과 함께 해 온 노거수(老巨樹) 한 그루, 한 그루의 역사와 문화를 ‘사람의 언어’로 바꿔 30년 가까운 책으로 펴냈다. 또한 신문 칼럼과 강연,

홈페이지 ‘솔숲 닷컴’(www.solsup.com)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나무에서 배우는 삶의 진리를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인문학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그는 강연에서 ‘나무를 지킨 사람’(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평오마을 주민)과 ‘사람을 지킨 나무’(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내 솔송나무)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려 ‘나무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용포리 주민들(15가구)은 마을입구에 자리한 한 쌍의 느티나무를 ‘우리 할매’와 ‘우리 할매’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다. 그런데 2009년 봄에 당산목이 서있던 땅이 주인들도 모르는 새에 조경업자에게 팔리면서 자칫 옮겨갈 위기를 맞았다. 농사를 포기한 채 온갖 방법을 모색하던 주민들은 이듬해에 가구당 200만원씩을 각축해 토지를 다시 사들여 나무를 지켰다.

“서너 가구는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라’ 전화했지만 나머지 가구는 농협서 대출을 받거나 이웃 동네 사람에게 사재를 빌렸다. 이렇게 해서 느티나무는



고규홍 칼럼니스트

마을 공동자선으로 영원히 남게 됐다. ‘돈 빌려다니는 게 창피하지 않았느냐?’라는 내 질문을 가만히 듣던 한 할머니가 ‘그게 부끄러워? 내가 농사를 잘 못 지어서 내 입에 풀칠하려고 돈을 꾸러 다니는 거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야. 지금 내가 돈을 꾸러 다닌 건 조상의 얼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라고 답했다. 흙 묻은 손으로 맨날 농사만 짓던 분들의 삶의 지혜,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꼈다.”

이어 그는 고흥군 국립 소록도 병원 내에 있는 ‘솔송나무’의 사연을 들려줬다. 본래 울릉도 절벽에서 자생하는 토종나무인데 이곳에 심어진 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본래 모습 대신 반원형 나무모양을 하고 있었다. 소록도를 찾은 그가 한 한센인을 통해 듣게 된 나무의 ‘사연’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소록도에 들어와 있던 한센인들에게 그 나무는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체’였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매일 나무 앞을 지나 갈 때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라주며 위안을 받았다. 그는 요즘 전남과 경북, 강원도에 있는



‘나무 칼럼니스트’인 고규홍 천리포수목원 이사(가운데)가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그분이 ‘소록도 모든 나무는 우리들의 썩어 문드러진 손으로 어설픔게 부여잡은 호미로 적당히 끊어낸 흙 위에, 썩어서 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저절로 흘러내린 침이 거름이 돼서 자랐다’고 말씀을 할 때 가슴이 찡했다.” 그는 요즘 전남과 경북, 강원도에 있는

나무에 관한 책(3권)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정도 써야할 책들이 출판사와 이미 계약돼 있을 정도로 일감이 밀려왔다.

“나무가 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죽어가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한편 17일 열리는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은 1980년대 인기 그룹사운드 ‘다섯손가락’을 이끌었던 이두현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깊어가는 가을... 시·음악이 흐르는 농심콘서트

농협 광주본부 성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1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관내 NH농협은행 지점장, 지역농협 상임이사 및 전·상무, 광주본부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음악과 함께하는 농심(農心) 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가을을 맞아 임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올해 마지막 분기 사업추진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시인·시낭송가와 음악인들

이 초빙돼 다양한 공연을 펼쳤으며, 광주본부 직원들의 색소폰 연주도 이어졌다.

또 행사에 참여한 농협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기도 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직원여러분들과 시·음악이 함께하는 농심콘서트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농업·농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농심으로 농업인의 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대 의대·전남대병원 의료진, 추석 연휴 해외 의료봉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남대병원 의료진 등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사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생, 정형외과 교수 및 전공의, 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최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시 외곽 골람볼라 병원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했다. 봉사단은 일주일 동안 선천성 기형 및 변형 환자 53명을 수술했다. 시설지원 후원금과 의료물품도 기부했다.

정성택 교수는 “평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아이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희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며 “봉사 활동에 참여한 의료진



또한 그들로부터 인생의 참 의미를 배웠다”고 말했다. 전남대의대와 전남대병원 정형외과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추석연휴를 이용,

방글라데시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6000여 명에게 외래진료를, 422명에게 수술을 해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문인협회, 장성 축령산서 시화전

전남문인협회(회장 박형동)는 최근 장성 축령산 오솔길에서 남도문인들의 아름다운 서정시를 모아 시화전(사진)을 열었다.

이번 시화전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행사로, 남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예술을 접목해 남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일환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시화전은 전남문인협회 시인들의 시와 수필문장 100여 작품이 시화로 제작돼 전시됐다. 이에 앞서 7월 중순~8월 중순에는 보성 북재 자발에서, 이후 8월 중순부터 말까지의 소록도 중앙공원에서 전시됐다.

박형동 전남문인협회장은 “앞으로도 문인들의 좋은 작품을 선



정해 시화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7월 신안 중도, 8월 보성 북재, 9월 장성 축령산, 10월 소록도 중앙공원 등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한민국 지식대상’

### 광주 북구 우수기관

광주시 북구가 행정자치부와 매일경제가 공동 주관한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상은 ▲지식기반의 업무 추진전략 ▲지식행정·경영 활동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창출 ▲제4차 산업혁명 등 4개 분야를 평가했다.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 ‘북구 비전 365 오피니언그룹’ 등 주민과의 소통 창구 다원화를 통한 참여행정과 함께 청년간담회의, 주민등록 학습동아리,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모임 운영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활동의 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스마트워크지원 창조공간 조성 등을 비롯해 우리동네 깨알지도, IoT 기반 ‘용봉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한편 오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지식행정·경영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 화촉

▲고흥천(전 전남진 장흥농협장)·위정단씨 아들 경민군 유성환·김혜숙씨 자녀 정은양=14일(토) 낮 12시, 상무지구 힐리데이인광주 호텔 3층 컨벤션홀.

▲이대홍·황금자씨 차남 진의(마르코)군 최환연(광산장학재단 사무국장)·민애자 차녀 가영(에스텔)양=14일(토) 낮 12시 광주상무지구 S타워 웨딩컨벤션3층 메리골드홀

▲송재삼·이준이씨 아들 세준군 정진호(백림약국 대표)·박기남 씨 딸 다예양=14일(토) 오후 2시 호텔 무등파크 마리아주 4층 디아망홀.

▲김규복·최경숙씨 아들 은근군 오성수(주식회사 맥서브)·정용순 씨 딸 진주양=15일(일) 오후 1시 대구시 북구 매천동 618-24 강북컨벤션 5층 컨벤션홀. 당일 오전 8시10분 광주 서구 양동 KDB생명보험빌딩 앞 전세버스 출발.

▲김기주(금호목재 대표)·박복순씨 차남 도연군 이상복·윤란순씨 장녀 지혜양=22일(일)낮12시 서울 더 그랜드힐컨벤

션 1층플로리아홀.

###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월례회=13일(금) 오후 6시 화랑궁회관 062-224-1800.

▲광주공업고등학교 개교 71주년 제42차 한마음콘찬치=22일(일) 오전9시 모교 대운동장 062-511-1946.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는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광주대학교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나경, 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문의 010-3609-8117.

▲청춘FC 토요축구 회원 모집=축구를 사랑하는 50~60대 모집. 토요일 오후 2시30분 광주교육대학교 감독 010-2684-4490.

▲(사)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풍수지리학을 올바르게 아는 길. 무료 공개강좌. 9월4일 오후 7시. 문의 010-3640-8277.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부음

▲배한영씨 별세 배용균·득성·성훈·준석·상돈·상희씨 부친상 안현실·정애란·

황지영씨 시부상=발인 12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 1분향소 062-231-8901.

▲소재천씨 별세 소기석(영광기독교안과원장)·수석·대석씨 부친상 류선향·박정은·임현주씨 시부상=발인 13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 2분향소 062-231-8902.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301호 故김훈수  남(남/78세)</b> 子/子婦 : 김경진/박미숙, 현진/최경화 女/婿 : 김영숙/박영민, 미숙/최동수, 현숙/이동현 未成人 : 안숙/최만주 • 발 인 : 10월 13일 • 장 지 : 화순 동면 선영	<b>401호 故정광양  남(남/91세)</b> 子/子婦 : 정해영/김현희 女/婿 : 정해민, 해나/이석찬, 해자, 미나/허인수, 해랑 未成人 : 조준이 • 발 인 : 10월 12일 • 장 지 : 영락공원
<b>101호 故강선자  남(여/73세)</b> 女/婿 : 김미경/최우장 未成人 : 김도순 • 발 인 : 10월 12일 • 장 지 : 영락공원	<b>102호 故이현자  남(여/79세)</b> 子/子婦 : 최영귀/임순자 女/婿 : 최준식/임병수 • 발 인 : 10월 13일 • 장 지 : 영락공원
<b>함께한10년. 함께할100년</b> <b>금호장례식장 062-227-4000</b>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	